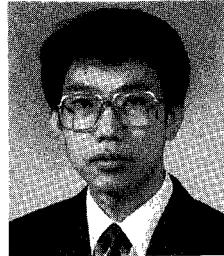


2004년의 양계 수의사



송 덕진
중앙케미칼

10 년후인 2004년에도 양계 수의사들은 질병 치료를 담당하고 있을까? 혹은 가공공장에서 계란 및 도계의 품질 검사를 하면서 질병예방에 관한 자문을 하게 될 것인가? 여기 미래의 수의사 역할에 대해 고찰해 보기로 한다.

앞으로 양계산업은 소비자들의 선호도 증가와 기술적 유전적 발달로 새로운 기회를 맞게 될 것이다.

1. 농장과의 협조

가축의 건강을 유지하고 농장관리에 대해 축주와 협조하여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수의사의 기본적인 임무이다. 이상적인 것은 축체 및 농장관리에 아무런 문제 없이 순이득을 최대화 시키는 것이다. 현재 양계산업에서의 수의사의 역할은 일부 분야에 전문화 되어 있다. 향후 10년 뒤에도 사양기술과 유전적 발달로 양계산업이 대규모화됨에 따라 수의사의 전문화는 더욱 두드러질 것이다.

2. 포괄적 능력

양계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연구활동에 몸담고 있는 수의사들은 학문적인 연구와 실용성을 결부시키는 능력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으며, 성공적인 수의사가 되기 위해서는 일상 수의사 그 이상의 역할이 요구되어진다.

즉 전문적이고 일반적인 수의사보다는 임상적 지식과 사업적 사고(Business mind), 관리 및 마케팅(Management & Marketing) 능력을 겸비한 포괄적인 수의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연구 초기 단계에서부터 거시적인 안목으로 시작하는 것이 정열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농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연구가 될 것이다.

3. 연구관점

생산성 제고를 위한 열망은 새로운 분야의 연구를 요구하고 있으며, 특히 영양, 질병, 닭의 행태 및 복지(Behavior & Welfare), 유전자 분야가 중점대상이 되고 있다.

사료에 대한 연구는 사료효율을 개선하고 궁극적으로 생산비를 줄이는 것이다. 선진국의

경우 전체 곡물에서 사료곡물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그러므로 대체사료 원료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주목을 받게될 것이다.

어떤 경우이든 수의사들이 지니고 있는 양계에 관한 특정 지식은 생화학, 닭의 대사경로, 복잡한 영양체계 및 실용화 방향을 알게됨으로서 더욱 그 이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4. 질병관리

점차 대규모화 되어가는 양계 경영에서 질병관리는 필수적이며 앞으로도 그 중요성은 더 높아질 것이다. 여기서 질병이라 함은 닭 자체의 병리적 질병은 물론 계란이나 닭고기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질병을 말하는 것이다.

양계 전문 수의사들은 제약회사에 근무하거나, 질병예방 및 균절 치유를 위한 대책을 개발할 수도 있겠으며, 약리적 실험을 통한 백신개발에 종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반면에 수의사들의 역할이 줄어들게 될 분야는 축산물 검사와 부검 업무로서 이런 일들은 10년후에는 컴퓨터에 의해 보다 효과적이고 정밀하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5. 복지문제

최근 환경과 가축 복지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 증대는 양계산업에서도 향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변화를 모색해야 할 분야이다. 각기 다른 조건에서의 닭의 행태연구와 같은 것이 이들 분야에 속하게 되며 가축을 돌보는 수의사들의 참여는 신뢰감을 높여 줄 것이다.

수의사들은 양계 경험을 지닌 전문인력으로서 분자유전자 연구에 참여하여 일반의사와 유

전공학자, 농업전문가, 축산학자와 같은 관련 분야의 연구원들과 공조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6. 학문과 관리의 조화

선진국에서의 양계산업은 점차 대규모화 자동화되어 가고 있으며 위생수준의 향상과 함께 숙련된 전문인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현대적인 농장에서의 수의사의 역할은 필수적이며, 의학과 수의학 그리고 경제적인 사양 관리 사이에 교량적 역할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7. 결 론

양계 수의사들은 일어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예방하기 위한 지식을 임상적인 면과 농장관리에 적용시킬 수 있다.

열대지역 국가에서는 아직도 제대로 된 생리 실험실을 갖추고 있지 못하며 환경 및 복지에 대한 관심 증가로 인해 선진국에서도 현재와 같은 집약적이고 대규모화된 설비를 갖추지 못할지도 모르며, 그만큼 질병예방이 중요시되고 있다.

수의사라면 닭에 관한 생리학, 생화학, 유전학, 해부학에 대한 해박한 지식을 지니고 있어야 하며 사양관리 및 경영능력도 겸비해야 된다. 그러므로 대규모 농장에서 수의사를 상근 임원으로 대우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2004년의 수의사는 임상분야와 농장관리를 조화, 연결시킬 수 있는 국제적인 정보 전달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 ■ ■